

##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벤처기업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기초자치단체장, 지역혁신위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4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혁신 전문가 4000여 명과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부산시가 공동주최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규모 전시행사 뿐 아니라 159개의 성공사례 발표, 국내외 컨퍼런스, 52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산물 한마당, 전국 각지의 25개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난 8월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혁신기반 구축사업 등에 앞으로 5년간 총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개막식 행사 뒤 허남식 부산시장, 협회 김태희 부회장 등 행사관계자와 함께 전시장 개막 터치버튼을 누르고 부산시 홍보관을 시작으로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희망을 전국으로

지역혁신 성공사례 발표회에서는 지자체와 대학, 중소기업, 산업단지, 연구(지원)기관으로 나뉜 총 159개의 성공사례가 발표되었다. 성공사례 중 전남 보성군(보성녹차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 지자체 분야)과 경북대(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핫라인센터 운영 / 대학분야), 태장농공산업단지의 연세대 원주캠퍼스(산학협력을 통한 원주지역 혁신모델 추진 / 산업단지분야), 호서대창업보육센터(창업동아리에서 스타기업까지의 산학협력 / 연구지원기관분야), 백산OPC(산·학·연을 통한 기술혁신 / 중소기업분야)가 분야별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해의 성공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지역혁신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컨퍼런스는 지역혁신협의회 총회를 비롯해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KAIST 러플린 총장과 일본 산업클러스터 연구의 일인자인 규슈대 야마자키 교수, 혁신이론의 권위자 필립 쿡, 인제대 성장모 총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의 특별강연과 지역혁신 토론회 및 지역혁신 연구회, 혁신리더그룹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다.

백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전시행사는 지자체, 대학, 연구지원기관, 기업 등 혁신주체들의 공동 테마관 형식으로 구성돼 지역혁신 비전 및 성과, 우수사례들이 전시되었으며 야외 전시장에서는 지자체별 대표적인 중요 무형문화재 공연과 특산물 한마당, 문화행사 및 이벤트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 벤처기업은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13일 오전 10시 다목적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 강원 연구원이 '벤처 부활의 조건', 숭실대 장범식 교수가 '벤처생태계의 복원-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건국대 안준모 교수가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캠퍼스와 실리콘밸리의 산-학 연계를 통한 성공모델사례를 제시했다.

휴맥스 변대규 대표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자사의 사례를 통해 '휴맥스 혁신의 경험과 교훈'에 관해 주제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장흥순 회장은 '다시 벤처다'를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서의 벤처기업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장회장은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R&D의 핵심주체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용이하다"며 "향후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지역발전, 산업발전, 지방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